IBK기업은행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ESG 대출 아시아 최우수 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사회적채권 아시아 최우수 은행 글로벌파이낸스
단기투자상품 아시아 최우수 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중기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유로머니
중기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아시아머니 아시안뱅커
지속가능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글로벌파이낸스
포용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유로머니
개인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아시안뱅킹&파이낸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2024. 09. Vol. 234 | 고품질 알루미늄 빌렛과 고객 신뢰로 날아오르다 | IBK경제연구소

2024 September Vol. 234

CEO REPORT

CEO STORY

김혜경 ㈜미래금속 대표

고품질 알루미늄 빌렛과 고객 신뢰로
날아오르다

IBK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VER STORY

㈜미래금속은 알루미늄 합금 빌렛 제조사로, 고객사와 협력업체로부터 믿을 만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중소기업 CEO REPORT> 지난호 보기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SPECIAL THEME

04 **THEME ①**
요동치는 미국 대선, 미국인들의 선택은?

08 **THEME ②**
트럼프 트레이드 vs 해리스 트레이드, 한국 영향은?

12 **CEO STORY**
김혜경 ㈜미래금속 대표
고품질 알루미늄 빌렛과
고객 신뢰로 날아오르다

18 **IBK & START-UPS**
홍일호 대표, 허은 대표
백종현 대표, 장원건 대표

22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

24 **GLOBAL ISSUE**
전 세계가 놀랐다!
사상 최악의 글로벌 IT 대란

28 **POLICAST**
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쟁 심화가 낳을 부작용

30 **INDUSTRY REPORT**
K-푸드에 길들여진 입맛 평생 간다

34 **in FUTURE**
육식의 미래, '배양육'을 아시나요?

38 **MONTHLY INSIGHT**
'노(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

42 **about TAX**
중소기업이 알아둬야 할
2024년 세법 개정안

44 **about LABOR**
한가위에 알아보는
명절 관련 노무이슈 Q&A

46 **CEO툰**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롯데 신격호

48 **ECONOMIC REVIEW**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50 **IBK SUPPORT**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발행일 2024년 9월 6일(통권 234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김규섭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385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World economic outlook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통일부 자문회의 통일정책분과 위원장, 한국핵물질관리학회 이사, 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 네트워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동치는 미국 대선, 미국인들의 선택은?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107일을 남기고 전격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바이든을 상대로 상승세를 유지하던 트럼프 대세론이 주춤하면서 이번 대선 결과를 전망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요동치는 미국 대선 판도

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금까지 펼쳐진 대선 레이스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첫째는 6월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방송사에서 열린 바이든-트럼프 간의 첫 TV 토론이다. 토론에서 바이든은 처음부터 발음이 불분명했고 숫자나 팩트를 기억해내느라 몇 차례 더듬고 버벅거리기도 했다. 예상대로 트럼프가 바이든에 압승을 거뒀다는 토론 후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둘째는 7월 13일 발생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다. 트럼프는 피습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 채 '싸우자'고 외쳤다. 특유의 쇼맨십을 여지없이 발휘해 미국인들의 뇌리에 오래 남을 '스트롱맨' 이미지를 굳힌 명장면을 연출했다. 이를 계기로 이미 선거에서 이긴 거나 다름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셋째는 7월 21일 바이든 전격 사퇴와 카멀라 해리스의 등장이다. 바이든을 괴롭혀 온 고령 논란, TV 토론에서 보여준 취약한 모습 등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등장한 카멀라 해리스는 민주당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제 미국 대선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혼란 상태다.

해리스 독트린 대 트럼프 독트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인한 안도감과 소위 해리스 허니문Harris honeymoon 효과로 지금은 해리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해리스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극복해야 할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해리스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장애는 바이든이 남긴 '경제난'이다. 높은 생활물가와 유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은 미국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다. 경기가 안 좋으면 항상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무역 정책의 경우 해리스의 입장은 현재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유사하지만 노동자 중심, 친그린, 경제를 잘 아는 무역정책을 내세우는 점에서 트럼프와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덤핑 공세 등에는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면서도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리스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는 매우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해리스는 동료 상원의원 55인과 함께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을 주도했고,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NATO와의 협력과 관련해 해리스는 바이든을 대신해 뮌헨안보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 다수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해리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전에 열린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NATO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고Unwavering, 철통 같은Ironclad' 지지를 약속하며 NATO 헌장 5조 집단방위 규정은 '신성한sacrosanct'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GDP 2% 국방비 수준을 지키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해 이런 약속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해리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안보 지원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해리스는 때때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스라엘에 좀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민 문제는 트럼프 측이 강점을 지닌다고 알려진 이슈다. 공화당은 해리스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차르Border Czar'로서 국경을 바로 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공격하지만 사실 해리스는 이민 문제에서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국경 차르'로 임명된 적도 없다. 트럼프 측의 공격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6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입국자에 대한 망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1) FP Staff, "The Kamala Harris Doctrine: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s foreign-policy views," Foreign Policy, July 26, 2024 (https://foreignpolicy.com/2024/07/26/kamala-harris-policy-china-russia-trade-immigration-israel-gaza-india/).

발표한 이후 불법 입국은 크게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 대해서는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등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러 조직을 통해 그의 2기 집권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AFPI는 지난 5월 가히 트럼프 독트린Doctrine,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2] 보고서 소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두 전문가 프레드 플라이츠AFPI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와 스티브 예이츠AFPI 중국정책구상 의장, 수석연구위원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우선주의 외교 핵심은 기존 글로벌globalist 외교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외교는 민주와 공화할 것 없이 글로벌 외교로, 이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분쟁에 끝없이 개입하고 글로벌 제도를 국가보다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군사활동을 미국인들의 세금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3]

트럼프 측의 대對중국 시각은 매우 강경하다. 중국은 세계에 공급망과 제조업 등 기회를 제공했지만 세계화에 편승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더욱 공세적이고 대결적으로 변한 현상타파revisionist 국가다. 이처럼 중국이 최대의 위협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재선 시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 증액과 이를 위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압박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Precarious Position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다"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불안정한 위치' 등의 단어를 쓴 것을 두고 타임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4]

트럼프 재선 시 우려되는 또 다른 사안은 북한과의 보여주기식 거래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을 향한 개인 외교 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의 외교쇼가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지고 북핵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 트럼프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 간의 불균형 구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미국의 희생하에 다른 나라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경제·통상 분야의 불균형 구조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말하며 군사안보 분야의 불균형은 미국 동맹국들의 불충분한 안보 기여(미흡한 방위 분담, GDP 2%에 못 미치는 국방비 지출)를 말한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다. 물론 후보자로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대로 이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트럼프 1기의 경험으로 보면 2기는 1기보다도 더욱 미국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4년 미국인들의 선택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인데, 이는 주별로 배당된 상·하원 의원 수의 총합과 같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최소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와 남부의 선벨트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7개 경합 주에서의 판세가 결국은 승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우세가 이어지던 대선 국면은 바이든 사퇴와 해리스의 등장으로 트럼프의 우세가 한 풀 꺾였을 뿐 아니라 해리스가 앞섰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심심찮게 들린다.

예상 밖의 해리스 돌풍에 놀란 트럼프는 해리스를 '거짓말쟁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극좌 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 지지자들은 재빨리 해리스와 관련된 밈들을 퍼나르고 있다. 교육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너희는 어느 날 갑자기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라는 말에서 나온 '코코넛트리'는 Z세대 가수 찰리 XCX의 히트 앨범 '브랫Brat·악동'과 합쳐지며 젊은 층들이 열광하는 밈의 소재로 등극했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자들은 해리스의 헤픈 웃음을 겨냥해 실없고 가벼운 사람으로 폄훼했지만 해리스 지지자들은 오히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MALAMake America Laugh Again로 응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행해질 정도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풍토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정치적 선택 못지않게 미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사회문화적, 세대 간 대결의 성격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바이든-트럼프의 대결 구도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바탕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묻는 대신 누가 덜 싫은 후보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해리스의 등장은 이러한 대선 구도를 새로운 게임으로 변모시켰다. 81세 바이든과 78세 트럼프의 반복되는 노익장 대결에 식상한 진보적 청년세대는 59세 '브랫' 해리스의 등장에 뜨겁게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매치에서 MAGA와 MALA의 대결로 바뀐 이번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2) Fred Fleitz (ed.),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America First Press, May 9, 2024).
3) 2024년 7월 9일, 세종연구소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4) Eric Cortellessa, "How Far Trump Would Go," TIME, April 30, 2024 (https://time.com/6972021/donald-trump-2024-election-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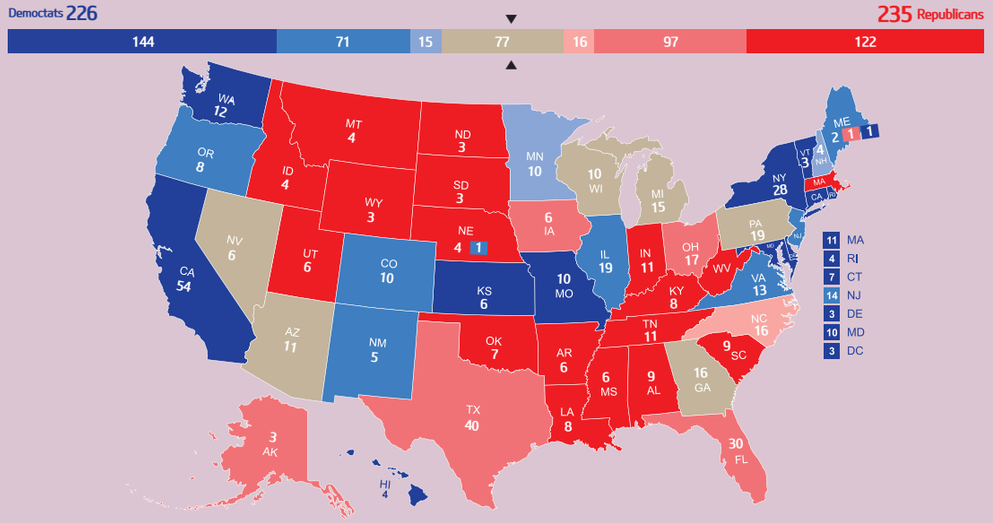
Korea economic outlook

트럼프 트레이드 vs 해리스 트레이드, 한국 영향은?

미국이 갖는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11월 선거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는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로 나섰다. 주요 6개 경합주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두 후보의 분야별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진단해본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연구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 붉은색은 공화당 우세, 파란색은 민주당 우세, 회색은 경합 주를 의미, 출처: https://www.270towin.com/(2024.8.16. 기준)

Ⅰ. 관세정책

트럼프 후보는 보편적 기본관세모든 수입품에 10%와 상호관세상대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율 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를 종료할 수 있음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일반 미국인들에게 오히려 물건가격을 높이는 부작용만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보복으로 농업계에 피해만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방적 관세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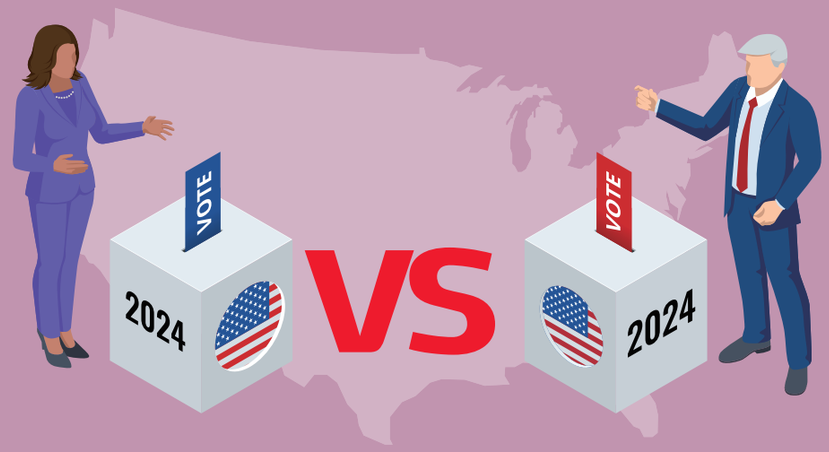
Ⅱ. 글로벌 공급망 정책

두 후보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는 1기에서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을 통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한 자국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통해 탈중국화를 추진한 바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등을 통해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의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추구하고 있다.

Ⅲ. 통상협정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범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개정했으며, 한미FTA 개정과 미일무역협정,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추진했었다. 트럼프 후보는 USMCA와 한미FTA 개정을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무리한 재개정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나 무역적자 등 통상현안에 있어서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압박의 수위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

1) CSIS(2024.7.29.) "Don't Hold Your Breath for a New Democratic Trade Policy"



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소다자 협의체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중인 IPEF를 들 수 있는데, 총 4개의 필라Pillar 중 필라 2공급망, 필라 3청정경제, 필라 4공정경제 협정은 지난해 타결됐다. 이 외에도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등에서의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과 고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난 4년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무역협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Ⅳ. 대對중국 견제 정책

대중국 견제 강화 기조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나, 후보에 따라 세부적인 접근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1기에 화웨이 등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한 바 있었는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견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각종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보조금 수혜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모든 분야가 아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 국한해 정밀 수출통제와 국내 제조 기반을 육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2], 최근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명령한 것은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에 점차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

Ⅴ. 에너지·환경정책

에너지와 환경정책은 양 후보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분야다. 트럼프 후보는 1기와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재탈퇴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와 가스 시추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후보는 기존의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원의원 시절 환경이슈를 너무 약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TPP에 반대했으며 USMCA에 반대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리스 후보가 집권할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4]

Ⅵ. 금융·환율 정책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시행되면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5] 한편 트럼프 후보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절하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환율조작에 대한 301조 조사나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무역정책과 연계해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Ⅶ.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장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FTA체결국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보편관세를 적용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152억 3,7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의 중간재 수출도 약 58억 7,900만~74억 2,2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는 FTA체결국인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은 약 47억 1,9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가 제한적이고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23~0.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6]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적자 폭이 큰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배터리, 컴퓨터 부속 등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후보뿐 아니라 해리스 후보 역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공급망 분절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의 실질GDP는 약 1.41~1.83% 감소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화학, 철강·금속, 전자·기계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돼 왔다는 점에서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으로 인한 조정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견제기조가 강화되면서 반도체 등 산업에서는 대미 투자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과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동참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7]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를 지연시키게 될 경우 한국 역시 금리인하 시기나 폭이 제한되면서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으로 염려된다. 지난 6월 공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한국은 2회 연속 제외됐다.[8] 이런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추후 재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2) 이를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라고 부르며 핵심 분야에 대해 고강도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small yard high fence로 불리기도 함.
3) 산업연구원(2024.5.10.) "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4) CSIS(2024.7.29.) "Don't Hold Your Breath for a New Democratic Trade Policy"
5) IBK 경제브리프(2024.7.24.) "다가오는 트럼프노믹스, 국내경제 영향과 전망"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4.24.) 2024 미국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2.22.)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8) ①외환시장 개입 ②경상수지 흑자 ③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2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3개를 충족할 경우에는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한다.

Writing. 이경희 Photo. 김정훈

김혜경 ㈜미래금속 대표

고품질 알루미늄 빌렛과 고객 신뢰로 날아오르다

미래금속은 소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알루미늄 합금 빌렛 제조사다. 보수적인 제조업에서 보기 힘든 여성 대표로서 자신의 강점을 기업의 특장점으로 승화시켜 고객사와 협력업체로부터 믿을 만한 생산업체이자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미래금속의 김혜경 대표. 그를 만나러 직접 구미로 내려가 보았다.

창업
2011년

본사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4길 40(공단동)

인원
30명

주요 사업
AL-Billet 빌렛생산

2023년 매출액
500억원

2024년 매출 목표
700억원

도전이 두렵지 않았던 청년 대표

미래금속의 첫인상은 깔끔, 그 자체다. 사무실은 물론 수많은 원자재들이 쌓여 있는 너른 안마당, 공장 내부까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갈하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성 대표의 등장이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기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죠. 외모를 보고, 여성이라는 점을 두고, 일에 대한 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았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제조업체의 사장이라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패션회사 CEO라고 해도 믿을 법한 분위기를 가진 김 대표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알루미늄 제조업에 뛰어든 배경은 조금 독특하다. 공공기관에 입사해 나름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돌연 사표를 내고 알루미늄 압출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을 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수자원공사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항상 반복되는 업무였어요. 세상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서인지 지루함을 느끼다가 결국 퇴사를 했고, 1995년에 알루미늄압출 중소기업 회사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으레 그렇듯 김 대표는 그곳에서 생산·영업·자재·회계 등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업무를 접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듯한 활력과 생동감, 일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 그 많은 업무들 중에서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생산 업무의 알루미늄 압출 생산 공정이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알루미늄의 다양한 쓰임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가 부가적으로 운영하던 임대공장을 수익성과 리스크를 이유로 포기하려 했을 때 자신이 해보겠노라고 용기를 냈고, 미래금속은 2011년 마침내 그 이름을 내걸었다. 김 대표의 나이가 마흔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다.

오직 기술력으로 승부하다

회사를 차린 김 대표는 사장실에 들어앉는 대신 2년간 전국을 돌아다녔다. '주조'라는 공정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이 영업도, 생산관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조공정과 회사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해도 현장에서 부딪치며 배우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다행인 것은 저의 태도를 보고 현장의 베테랑 직원들이 점점 인정해주시고 열심히 가르쳐주셨다는 점이었어요."

김 대표는 2년 간 현장 직원들 곁에 붙어서 모든 것을 스

펀지처럼 흡수했다. 전체 주조 과정뿐 아니라 설비 운영과 원물을 다루는 법 등 일하는 시간은 물론 밥 먹는 시간에도 묻고 또 물어가며 배웠다. 이때 쌓은 인맥은 지금도 김 대표에게 굉장히 귀한 자산이다. 미래금속을 설립한 뒤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당시에 만났던 대선배들을 초빙해 강의도 듣고 기술전수를 받는 등 회사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금속의 핵심 업무는 알루미늄 합금 빌렛BILLET 생산이다. 알루미늄 빌렛은 다양한 산업에 소재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마그네슘·실리콘·구리·망간 등이 알루미늄과 합금돼 각기 다른 특성을 발휘한다. 쓰임새도 다양해 항공우주, 자동차, 건축, 핸드폰 같은 전자제품, 태양광 솔라 등 첨단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수요가 발생한다.

뿌리산업 분야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지만 고품질의 빌렛 제조 공정은 까다롭고 어렵다. 김 대표가 3D 산업으로 인식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R&D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다.

"해외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은 약 80% 수준입니다. 저희 연구개발진은 알루미늄 빌렛 제조 중 가장 중요한 Air Slip 주조공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Air Slip 주조 Mold 대형화 개발을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 설계에 따라 소재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 개발도 연구 중이며,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성공해 해외수출 역시 계약 단계입니다. 또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인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금오공대와 협력해 열회수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 같은 인원으로 15% 이상의 생산량 증대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둔 것도 회사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현재 빌렛으로 10여 제품을 생산 중이며,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성공한 기술력으로 보자면 30가지 이상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낸다.

최고의 품질과 고객의 신뢰로 비상하다

김 대표에게 지난 세월은 매시간이 도전이자 공부였고 소통이자 감사였다. 알루미늄 조직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온도의 기준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 화재와 부상의 위험이 큰 제조업의 특성상 직원이 다칠 때마다 회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들. 이런 와중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게 했던 건 하나였다.

"제가 회사를 접어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달려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장비를 갖췄어요. 남들이 보면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저렇게 많이 쓰냐고 해도 제 소신은 변함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자주 소통하고 그들을 볼 때면 아쉬운 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활기가 넘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것도 매해 올려 줬어요."

그래서일까? 미래금속은 중소기업임에도 직원들의 이직이 거의 없는 회사다. 10만 원만 더 줘도 쉽게 공장을 옮겨버리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10여 년을 붙박이처럼 일하고, 자기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가족이나 친구까지 데려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대표의 마인드가 직원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덕분이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진심은 직원을 넘어 고객사와 거래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고의 '품질'과 고객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수출을 하면 국내 단가보다 3배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내수 물량을 줄이지 않았고, 언제나 고객사에서 바라는 품질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원재료 공급업체들이 "깐깐하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스스로 검증해 가장 좋은 재료들을 보내오는 것도 품질에 진심인 김 대표의 경영철학을 알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신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최고의 소재 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더 장기적으로는 기부재단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꿈입니다."

History

- 2011.04 • 미래금속 알루미늄주조공장 개시(대구공장)
- 2017.06 • MAIN-Biz 인증기업
- 2017.07 • 구미공장 이전
- 2018.07 •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 2019.07 • AL-Billet 수출 (2019년 300만 달러 달성)
- 2020.05 • 소재·부품 전문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한국기업데이터)
  •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 2020.06 •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과기부)
- 2020.07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2023.01 • 2022년 매출액 650억 원 달성
- 2023.02 • 3단 공급라인의 링 장치 특허 등록
- 2023.07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2015
- 2023.11 • 뿌리기술전문기업 인증 (제 230301 - 0193호)
- 2024.05 • 환경안전시스템 ISO 14001:2015
  •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2024.06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2015

• **핵심 기술**
중소 공장 네트워크를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 **주요 서비스**
화장품 최적 생산 서비스, 글로벌 K-뷰티 브랜드 빌딩 서비스

㈜팩토스퀘어, 홍일호 대표

화장품 소량 생산 B2B 제조 솔루션

팩토스퀘어는 국내 중소 공장 생산 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최적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누구나 화장품을 쉽게 생산하고, K-뷰티 브랜드를 그리는 세상'을 미션으로 자신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쉽고 빠르게 런칭할 수 있도록 코스메틱 제품의 소량 생산, 빠른 생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K-뷰티 브랜드의 창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팩토스퀘어의 자신만만한 외침은 국내 중소 공장 네트워크화를 통한 코스메틱 소량, 단기 생산 B2B 제조 솔루션에 기인한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갖춘 인플루언서, 개인, 신생 브랜드, 법인 등을 연결해 주면 다양한 K-뷰티 제품이 빠르게 세상에 선보여질 수 있다.
"취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자 고유한 개성을 담은 브랜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고유한 콘셉트와 개성을 담은 K-뷰티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팩토스퀘어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팩토스퀘어는 '화장품 최적 생산 서비스'와 '글로벌 K-뷰티 브랜드 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는 시대적 과제인 다품종 소량 생산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9개의 중소 화장품 파트너 공장과의 협업은 필수다. 그 결과 팩토스퀘어는 MOQ(Minimum Oder Quantity, 최소 발주 수량)를 1,000개로 낮추고, 생산 기간도 6주로 단축했다. K-뷰티 브랜드 빌딩은 글로벌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화장품 브랜드 출시 서비스다. 최근 북미,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 대상의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 K-뷰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그 행보가 다양하다.
"화장품 브랜드는 최고의 콘셉트 기획자와 제품 기획자가 만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K-뷰티 브랜드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팩토스퀘어는 홍일호 대표와 안성현 COO, 박진희 CPO가 앤틀러코리아에서 만나 공동창업하며 숱한 도전과 실패를 함께했다.
"스타트업은 약 2%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50개 도전에 1개의 성공인 셈이죠. 저희는 지금 총 7개 정도의 아이템을 시도했는데, 잘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한계를 마주한다 해도 우리는 43번 더 도전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K-팝과 K-컬처에 힘입어 팩토스퀘어는 2025년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예정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제조 산업 분야에 유의미한 혁신을 이루고 싶다는 팩토스퀘어의 행보를 응원한다.

이온어스㈜, 허은 대표

에너지 모빌리티의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

이온어스는 전력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Net-Zero를 실현해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벤처기업이다. 배터리 중심의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 전력을 공급해 주는 이동형 ESS를 생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 **핵심 기술**
배터리 중심의 융합기술
• **응용 사례**
이동형 ESS, 배터리팩, RE100 태양광 서비스
• **홈페이지**
www.aeonus.co.kr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이온어스의 탄소중립기술은 RE100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인디고로 청정에너지를 저장,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력을 공급한다.
이온어스의 주력 제품인 '이동형 ESS'는 이산화탄소(CO_2) 없는 전기차 충전소와 이동하는 충전소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Zero Cycle 사회를 열어가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기존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인 디젤발전기를 대체하는 등 향후 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 고려되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터리팩'은 안전한 ESS 제품 또는 전기차 개조에도 구동용으로도 바로 활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RE100 태양광 서비스'는 탄소중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온어스가 고객을 대신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은 월 구독만으로 RE100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때 쓰고 남은 전력은 이온어스의 이동형ESS에 저장해 필요한 곳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는 친환경발전기 서비스 용도로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전기식 건설기계용, 전기차 이동충전용, 이동DR 등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제품화가 가능하죠. 안전 면에서도 전기차 전용 배터리 셀 기반의 배터리팩으로 국내 최초 KC62619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온어스 배터리팩은 기존 ESS보다 80배 이상 안전하며, 이는 전기차 개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체 배터리팩 시스템을 보유하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용량과 규격의 ESS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자금 압박, 그리고 필수 요소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진행과 기대와 다른 산출물에 실망도 컸지만 이동형 ESS 개발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실패의 과정에서 얻는 지식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성장할 이동형 ESS 시장에서 관련 분야 대표 기업 이온어스는 무엇보다 뛰어난 배터리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에너지기술 기업을 꿈꾸고 있다.

• **핵심 기술**
리튬이온 및 리튬인산철 배터리팩
• **홈페이지**
http://www.kobat.co.kr/

㈜코뱃, 백종현 대표

리튬 배터리팩 전문기업

코뱃KOBAT은 리튬 배터리팩 전문기업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을 꿈꾸는 코뱃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장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및 리튬인산철배터리 개발을 주도하며, 그와 관련된 주변장치 및 기술 전체를 포함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자제품의 성능은 배터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수많은 배터리 회사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코리아배터리Korea battery의 앞 글자를 딴 코뱃KOBAT은 그 이름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을 꿈꾼다. 그뿐만 아니라 BMS, OBC, 하네스 및 급속충전, 냉각, 방열 시스템 등 배터리팩을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5년 사랑스러운 딸이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 전동휠체어를 개발하고자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을 공부하게 됐죠. 밤낮없이 기술을 배우고 성장시켜 2017년에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창업하고 2019년 코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백종현 대표는 창업 전에는 자동차 관련 유통업에 19년 가까이 종사했다. 이 과정에서 맺은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된 팀원들은 코뱃의 핵심 자산이다. 모든 시작은 사람으로부터였고 실패와 역경을 이기는 원동력도 사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백종현 대표는 스타트업, 특히 제조 관련은 마치 자식을 낳아 기르고 독립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흡사하다고 전한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제품을 마케팅할 때, 양산 과정에서의 오류들을 바로 잡아나갈 때, 고객사에 최종인도하고도 혹시 모를 제품의 불량 이슈를 걱정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100도의 고온을 견디는 배터리, 국내 최고 기술의 로봇을 움직이는 배터리팩,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에 배터리팩 개발 공급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 후 남은 배터리를 이용해 전동휠체어 배터리팩을 만들어 공급했으며 일본제품 일색이던 골프카트 배터리팩을 역설계해 국내용으로 양산 공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코뱃을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회사로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pre A, Series A,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기업 선정,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코뱃의 시장은 전 세계 이차전지 전체 생태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이차전지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 협업을 비롯해 스위스·일본·베트남·필리핀 등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코뱃은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많은 기업과 협력하고 성장하는 친근한 기업을 꿈꾼다.

㈜티에네스, 장원건 대표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과 임상 솔루션

티에네스는 세라핀 투명교정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치과 임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임플란트 기반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덴티스를 모회사로 하며 시장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디지털 투명교정 장치 세라핀을 생산하고 있다.

• **주요 제품**
투명교정 장치 세라핀(Serafin)
• **시장 규모**
전 세계 10조 이상(2030년, 30조 예상)
• **홈페이지**
www.tnsmile.kr

티에네스는 2020년 투명교정 장치, 교정 촉진기 등 교정 전문기업으로 설립됐다. 'True Natural Smile'의 앞 글자를 딴 네이밍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투명교정 치료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디지털 투명교정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고 투명교정 장치 세라핀Serafin을 출시했다. 치아 교정치료에 필요한 진단, 치료계획 결정, 치료에 필요한 전 단계의 투명교정 장치, 그리고 투명교정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재료를 제공한다.

"기존의 브라켓 교정은 교정용 철사를 이용해 치과를 방문할 때마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이후 치료 진행을 결정했다면, 세라핀 투명교정 시스템은 치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치아 이동 과정을 치료 전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실제 치아 이동과 비교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티에네스의 세라핀 투명교정은 모든 처방된 증례를 투명교정 전문 자문 치과의사들이 치료계획 과정을 검수해 치료 결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치과의사들이 처방뿐 아니라 치료계획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 것 또한 이점이다.

"교정치료는 단순히 치아 배열이 목표가 아니라 기능적인 교합 관계를 이루도록 치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치과의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큰데요, 디지털화된 투명교정 시스템을 통해 기능적인 교합 관계를 이루도록 치료 결과를 유도하면 이전보다 더 간단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교합 관계 구현을 위해 티에네스는 디지털 치의학 및 교정, 교합, 보철 등에 능통한 인재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투명교정 시스템의 후발주자라는 약점과 관련 치료에 대한 국내 부정적 시선은 뛰어넘어야 할 산이었지만, 팀원 모두 한마음으로 세라핀을 성장시킨 덕에 출시 3년 반 만에 자타 공인 국내 브랜드 1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티에네스는 다양한 치과디지털 산업 분야의 진출을 준비 중이다.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선일금고제작을 방문했다.

유망기업 발굴·성장 뒷받침 약속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며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 행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한 중소기업은 1972년 설립된 선일금고제작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금고를 선보이며 글로벌 선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다.

김 행장은 지난 4월 화재 피해를 입었던 선일금고제작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기업경영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행장은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성장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인근 영업점을 방문한 김 행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거래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온다"며 "앞으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영업현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일금고제작

글로벌 보안 가전을 선도하다 선일금고제작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라고 하면 흔히 투박한 사무용 금고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선일금고제작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결합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선일금고제작은 1972년 故김용호 회장이 설립한 이후,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첨단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UL 내화/내충격 테스트를 통과한 내화 금고를 비롯해 보안과 현대적인 미학을 결합한 인테리어 디자인 금고, 실시간 알림과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는 스마트 IoT 금고가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선일금고제작은 단순한 금고를 넘어 생활 속에 녹아드는 제품들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루셀 금고와 친환경 제조 공정을 적용한 메타셀 시리즈, 그리고 고급 스피커를 탑재한 루셀 리스펙트 금고 등 선일금고제작의 제품들은 안전함을 넘어 일상에 특별한 가치를 더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금고를 보다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제품들은 국내 주요 유통 채널에 진출하고 유럽·아시아·북미 등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내셔널갤러리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 금고를 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김영숙 회장은 "선일금고제작은 단순한 금고 제조를 넘어 생활 속의 인테리어 가구, 더 나아가 스마트 보안 가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선일금고제작은 앞으로도 품질·지속가능경영·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고 첨단 보안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고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Check Point

전 세계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눈여겨볼 뉴스를 알아본다.

1 기시다 총리 전격 퇴임 발표… 차기 일본총리 안갯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내각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여 왔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정치 비자금 스캔들' 사건 이후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0% 수준에서 9개월가량 횡보해 온 데다 자민당이 지난 5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차기 총재직을 노리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 中, 안티모니 수출통제… 글로벌 광물 시장 불안감 고조

중국이 이달 15일부터 준금속 안티모니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주요 광물 산업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수출업체들은 안티모니 원석을 포함한 관련 장비·기술 등을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티모니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필수 광물로, 중국은 최대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안티모니 보유량은 64만 톤으로, 비중은 30%에 가깝다. 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 코미스[Komis]는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안티모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으로 더욱 상승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400억 유로

프랑스 정부가 2050년까지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10배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소 50개를 건설하는 등 향후 15년 동안 해상풍력 발전 시설에 4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3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4%로 하향

8월 22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국은행의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치다.

4.2%

인도 수출입은행[India Exim Bank]은 인도의 총 상품 수출이 FY25 2분기(2024년 7월-9월)에 1,117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2% 성장한 수치다.

2.9%

미국 노동부는 8월 14일 7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를 밑도는 수치로,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4 전 세계 곳곳 '엠폭스 주의보'… 남미·동남아에서도 의심 사례 보고

8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변형 엠폭스[MPOX, 옛 명칭 원숭이두창]가 국제적으로 확산하자 최고 수준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엠폭스는 독감과 같은 증상에 얼굴과 손 등에 고름진 수포가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을 비롯해 태국·필리핀·파키스탄 등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려가 커지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통제 방법 또한 알고 있다며 불안 확산 차단에 나섰다.

5 세계 최대 칠레 구리광산, 파업 중단

세계 최대 구리 생산지로 꼽히는 칠레의 에스콘디다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콘디다 광산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주 72시간 동안 진행한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 세계 연간 구리 생산량의 약 5%를 담당한 에스콘디다 광산 파업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지난달 16일 3%대 상승세를 보이며 런던 금속거래소 3개월물 구리 가격은 톤당 9,128달러를 기록했다.

54개국

주한 중국대사관은 자치구·직할시를 포함한 중국 19개 성[省]의 41개 대외개방 통상구가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놀랐다!
사상 최악의 글로벌 IT 대란

지난 7월 19일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등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되는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했다. 항공, 통신, 금융 등 피해 규모나 범위 면에서 '역대 최악의 IT 대란'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전 세계를 패닉에 빠트린 글로벌 IT 대란에 대해 알아본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7월 19일 전 세계적인 IT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IT 대란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태는 세계 1위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 제품 '팔콘Falcon'의 최신 업데이트 때 MS사의 윈도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등의 장애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주요 항공사, 독일 베를린 공항, 런던 증권거래소 등 전 세계 항공·방송·금융·의료 분야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저비용 항공사 발권·예약 시스템과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10개 고객사의 운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으나, 해외에 비해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문제가 된 보안 SW의 사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IT 대란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들

이번 대란을 두고 몇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 클라우드의 유용성에 관한 논쟁이다. 클라우드란 구름Cloud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한 공간에 집중해 두고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런 집중화된 데이터 시스템으로 인해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 전체의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클라우드가 최선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재해복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저장·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우수한 AI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봐야 할 듯하다.

둘째, 멀티클라우드 전략에 관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둘 이상의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여러 클라우드 환경을 혼합해 사용하면 하나의 클라우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클라우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정부도 클라우드 대란을 계기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의 다중화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결했다. 다만 멀티클라우드는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중요한 데이터는 자체 서버에, 나머지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대란과 망 분리 규제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망 분리는 기업 보안을 위해 내부 업무망과 일반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을 비롯한 공공 부분에 망 분리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망 분리가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실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외부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업무 생산성을 제한하고 IT 활용을 저해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난 8월 13일 10년 된 금융권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더 많은 업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분야에서 망 분리 규제가 이번 대란의 피해를 줄인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계기로 망 분리 유지의 명분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국내 클라우드 우선 전략 내지 소위 소버린 클라우드Sovereign Cloud 전략에 관한 논쟁이다. 이번 대란이 MS라는 글로벌 기업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만큼 한국에 특화된 소버린 클라우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소버린 클라우드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말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AWS·MS·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며, 한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로 멀티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소버린 클라우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 품질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 주권 확보 위한 정책 필요해

이번 대란은 사이버 시큐리티 확보 여부가 국가사회의 기본 인프라의 안정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계기였다. 이번 사건만 보면 클라우드에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패치 작업 전에 사전 테스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교훈이다. 정부도 보안 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을 적용하도록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결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운영복원력 법안DORA이 내년 1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감독기관이 CSP 등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감독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클라우드나 공급망 파트너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 권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주권의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쟁 심화가 낳을 부작용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 시장 규모는 2024년 상반기 기준 1,028조 원이다. 이는 제 1금융권 잔액만을 합한 금액이며, 2금융권 등을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쟁 심화에 따른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최소화 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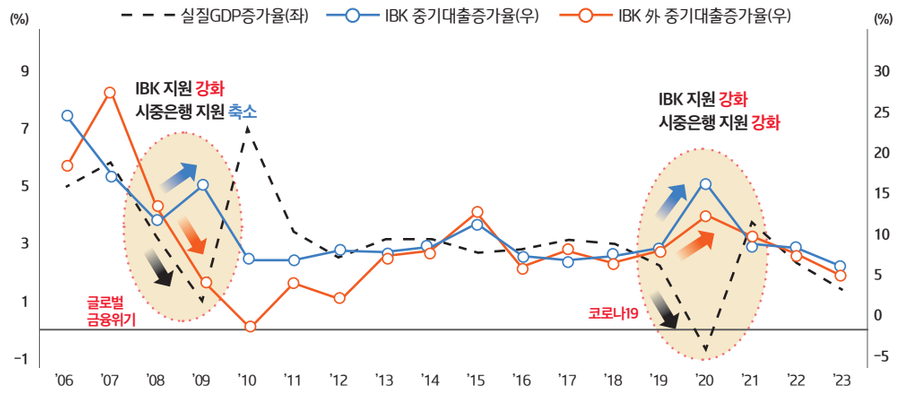
중소기업 금융시장은 크게 정책금융시장과 민간 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정책금융 지원은 과거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에 대기업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금융공급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IBK기업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재단 등 다수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주도해왔다. 반면 민간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경기가 좋은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소극적 공급패턴을 보여왔다. 이러한 민간 은행들의 중소기업 금융공급 패턴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2010년 이후 변화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기 호황기에 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축소하던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위급한 경제 상황에서도 민간 은행들은 중소기업 금융공급에 더욱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고 2024년 8월 현재도 그러하다.

민간 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패턴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먼저 2010년 바젤Ⅱ 도입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내부 모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속해서 중소기업 데이터를 축적해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부실 문제를 상당 부분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성숙단계 진입 및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로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전략이 한계에 이르고, 정부의 가계대출 확대 억제 전략 등에 따른 중장기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책금융 중심의 중기금융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과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생태계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도 정책금융 역할을 기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고집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대상을 선별하고 적시에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 은행까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공급기관들의 경쟁 심화는 금리 인하로 이어져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정부 정책입안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초기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의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으로 시장에서 경제 여건에 연동되지 않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기관은 IBK기업은행이다. IBK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똑같이 시장의 자금을 조달해 대출자산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조달 여건의 경쟁 열위와 중소기업에 집중된 대출자산으로 인한 높은 부실률로 민간 은행 대비 높은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일부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유지된 건전한 대출자산으로 시장 접근성이 낮은 잠재 우량 고객,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민간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대상이 IBK기업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실제 일시적 위기에 처하거나 미래 잠재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우량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이 쏠리면서 어려운 기업이 시장의 적정수준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등 중기금융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잠재 우량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이 중요한 요즘,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최소화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중기대출증가율: 국책은행(IBK) vs 시중은행



주: 국내은행 원화대출금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IBK, 한국은행

Writing. 김태현

K-푸드에 길들여진 입맛 평생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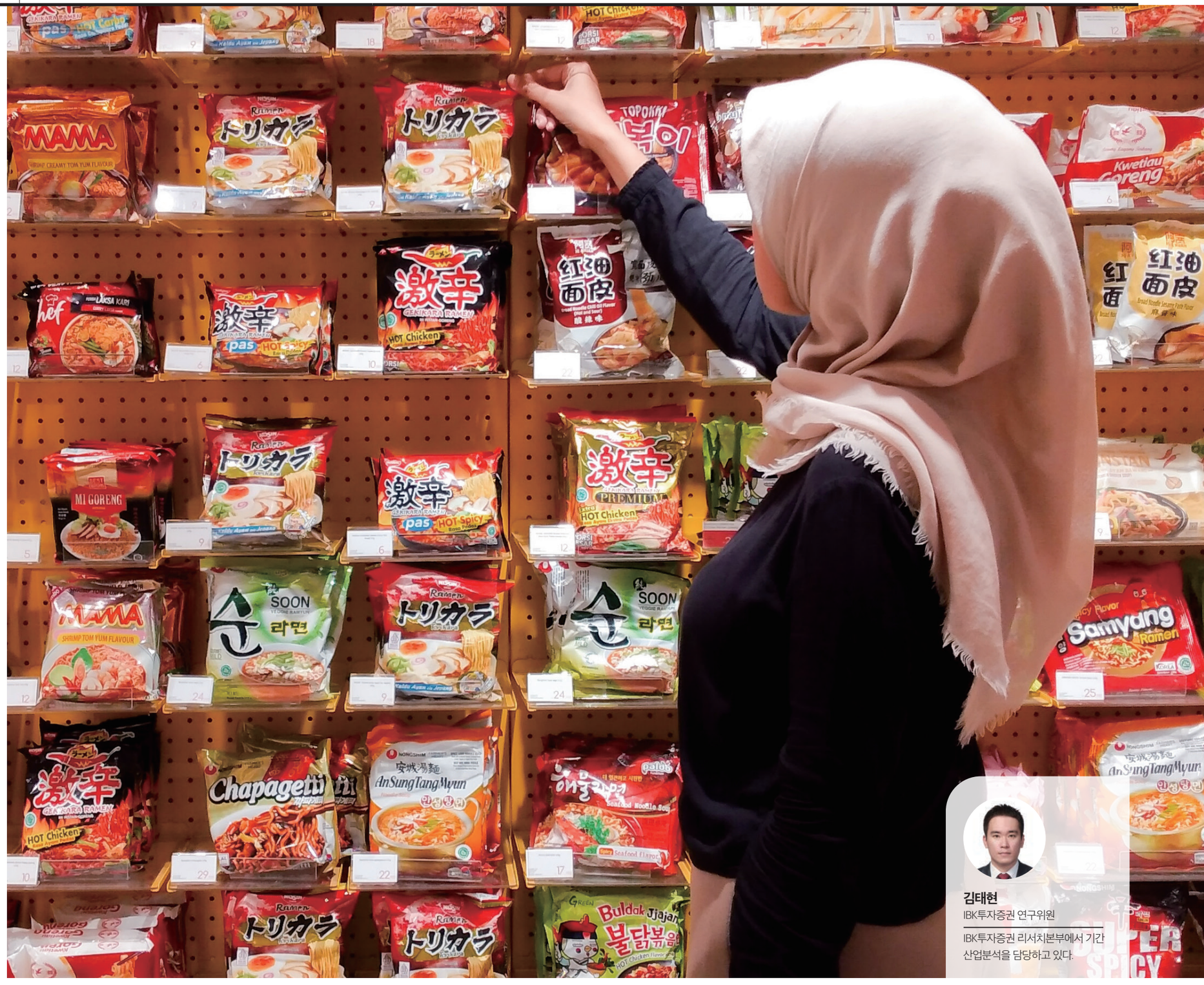
라면, 즉석밥 등을 포함한 K-푸드 7월 누적 수출액이 56억 7,000만 달러(약 7조 5,650억 원)로 전년 동기간 대비 9.2% 증가하는 등 K-푸드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이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해외 시장 확대 모멘텀과 시장의 투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맛은 한번 길들여지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라면 등 K-푸드 주 소비층이 전 세계 젊은 MZ세대임을 고려하면 K-푸드 열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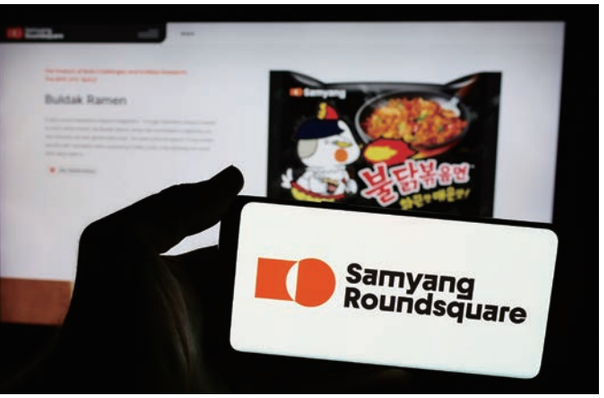
수출 성장 잠재력 면에서 라면 카테고리는 크게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또 빙과는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 흐름과 맞물려 미국·중국·인도 등 해외에서의 판매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류도 아직 수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2021년을 저점으로 판로 다변화에 따른 소주 수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면: 끝 모를 수출 성장세, 그 중심엔 북미지역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성비 식품으로 라면이 부각됐고,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더해지며 큰 폭의 라면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7월 누적 라면 수출액은 7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34.0% 늘었고, 올해 연간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위원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기간 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라면 수출 총액은 12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라면 총 수출의 약 17%(6월 누적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주목된다. 6월 미국 누적 수출액은 1억 달러로 58.3%yoy 늘었다. 삼양식품과 농심 모두 추가 증설을 통해 미국 시장 유통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지역의 중요도와 판매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 1개 가격은 18달러(한화 약 2만 4,480원)다. 현지에서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개당 가격이 각각 1.44달러(한화 약 1,958원), 1.09달러(한화 약 1,476원)로 빅맥 세트 가격의 6~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가격이 맥도날드 빅맥 세트 가격의 11~14%임을 고려하면 라면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가성비는 국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위 중량 당 가격 측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라면은 5,148달러/톤으로, 수출 1위 국가인 중국(3,401달러/톤)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소매판매가 또한 중국은 신라면 865원, 불닭볶음면 1,092원(Baidu 판매가, 원-위안 환율 189원 기준)으로 국내와 유사한 반면 미국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라면 업체들의 미국 판매 비중 확대는 전사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더욱이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10년간 유럽 지역 전체 수출액은 중국 수출액에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6월 누계 네덜란드 수출액이 6,067만 달러를 기록한 작년의 75.1% 수준까지 올라왔고, 주요 라면 수출국이었던 일본·대만·필리핀 등을 제치고 3위의 라면 수출 대상국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로의 수출도 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직 라면 수출 성장의 한계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빙과: 미국, 인도 등 해외 비중 확대

빙과류 수출도 증가 추세다. 작년 국내 아이스크림(기타 빙과류 포함) 수출액은 9,310만 달러(+20.0% yoy)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이 12.5%, 캐나다 10.9%, 중국 9.2%, 베트남 5.8% 순이었다. 작년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기저 부담이 있지만, 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빙그레와 롯데웰푸드의 해외 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빙그레 냉동 및 기타품목에서 수출 비중은 올해 1분기 약 16%로 늘었다. 빙과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메로나(빙과 내 비중: 80~90%) 등 빙과 판매 호조에 현지 법인 매출이 2017년 126억 원에서 작년 5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법인 실적도 작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롯데웰푸드 빙과 매출 중 수출 비중은 3~4%로 미미한 반면 자회사를 통해 인도 빙과 시장 내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롯데제과가 2017년 말 현지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하브모어HAVMOR를 약 1,670억 원에 인수한 이후 인도에서 빙과 판매 실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실제로 하브모어 매출이 2018년 907억 원에서 작년 1,656억 원으로 늘었고, 동기간 당기순이익도 77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가했다. 롯데웰푸드는 작년 1월 5년간 약 700억 원을 투자해 빙과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푸네 신공장이 올해 중으로 1차 완공돼 돼지바 등 국내 주요 제품 생산 라인이 일부 도입될 전망이다. 2027년 2차 완공되면 생산능력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2배 확대되는 만큼 인도에서의 중장기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국토 대부분이 열대에 속해 있고, 최근 수도인 뉴델리에서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 세계 인구수 1위의 안정적인 내수 시장뿐 아니라 날씨 효과로 인해 증설 이후 롯데웰푸드의 인도 빙과 판매 실적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그래도 기회는 있다

국내외적으로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을 저점으로 소주 수출 반등세가 이어지는 점은 고무적이다. 작년 소주 수출액이 10년 만에 1억 달러를 회복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전년 대비 4.7%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무학 등의 합산 소주 매출이 2조 원 초반임을 고려하면 수출 비중이 10% 미만으로 크지 않다. 다만 최근 높아진 K-푸드 선호도와 국내 주류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사업 확대 움직임을 감안하면 소주 수출 잠재력은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0년에는 소주 수출의 대부분이 일본(수출 비중: 82.7%)이었지만, 현재 미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미국 소주 수출 비중은 24.7%로 28.7%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본향 대비 수출 증가율이 높아 조만간 수출 대상국 1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수제 맥주 생산량이 2019년 2,627만 배럴을 고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맥주 소비는 다소 주춤한 가운데 스피리츠위스키, 브랜드, 보드카, 진 등 증류주 시장은 성장 추세다. 현지에서 소주도 스피리츠 카테고리에 포함됨을 고려하면 맥주 시장 위축에 따른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이트진로 소주(일반 소주+리큐르) 수출액은 작년 1,394억 원을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의미한 점은 2021년까지는 순하리 등 리큐르과일소주 제품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면 2022년부터 참이슬 등 일반 소주의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큐르 수요의 한계성을 경험했던 국내 사례를 보듯이 중장기 소주 수출 지속성을 위해 일반 소주 수요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주 세계화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작년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하노이에 첫 해외 소주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투자규모는 1,350억 원이며 2026년 3분기 중 완공되면 2027년부터 해외 소주 판매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공 첫해 100만 상자를 시작으로 500만 상자까지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시장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소주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식의 미래, '배양육'을 아시나요?

동물 세포를 배양해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한 '배양육'은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맛과 식감 등이 실제 육류와 더 유사한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배양육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 육식의 미래, 배양육에 대해 알아본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 지식 큐레이터
과학 기술 전문 기자 혹은 지식 큐레이터로, 북토크 팟 캐스트 'YG와 JYP의 책걸상'을 진행 중이다. <과학의 품격> <강양구의 강한 과학: 과학 고전 읽기>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올해 한 OTT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를 만난 드라마 가운데 <지배종>이 있다. 화제작 <비밀의 숲>의 이수연 작가가 집필하고 주지훈·한효주 등 유명 배우가 주연으로 나섰지만, 대중의 반응은 시들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소재만 놓고 보면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잠재력이 있다. 바로 '배양육Cultured meat'을 소재로 다룬 최초의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배양육은 동물의 근육 세포를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배양해서 만들어낸 고기를 뜻한다. 근육 세포라고 하니 거창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실체가 바로 소·돼지·닭의 근육 세포다. <지배종>은 바로 이 배양육을 만들어 낸 가상의 기업 'BFBlood Free'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여기까지만 읽고서 무슨 SF 같은 이야기냐고 코웃음치는 독자가 있다면 조금만 참아 달라. 왜냐하면 배양육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시간 배경이 2035년이나 2045년처럼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2025년 바로 내년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배양육 탄생의 뜻밖의 비밀

배양육의 등장 과정을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따져 보면, 바로 암 치료다. 암 환자를 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암 치료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지금 의사가 특정 환자의 암에 투약하려는 치료제의 효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 가능한 선택지가 여럿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해서 치료의 가능성을 키우고, 나아가 효과 없는 약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주목받은 방법이 '오건-온-어-칩organ-on-a-chip'이다.

오건-온-어-칩은 말 그대로 칩 위에 인간의 폐, 심장, 뇌 같은 기관을 올려놓은 것이다. 얼른 감이 안 올 듯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렁-온-어-칩lung-on-a-chip'은 인간의 폐를 칩 위에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인간의 허파꽈리폐포 세포와 모세혈관 등을 칩 위에 배양했다. 당시 한국인 과학자 허동은 박사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의공학 교수가 주도해서 개발한 이 렁-온-어-칩은 인간의 폐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노폐

물은 방출한다. 칩 위에 구현해 놓은 것이라서 생김새는 실제 폐와 다르지만 구성과 기능은 같다.

폐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앞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암이 똬리를 틀고 있는 환자의 폐를 칩 위에다 배양한다. 이후 폐의 암세포에 다양한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도 쪼이는 등 환자의 폐 암세포를 죽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처치 방법을 선택해서 실제 치료에 활용하면 말 그대로 환자 개인에 맞춤한 암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오건-온-어-칩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는 토끼 같은 동물 대신 인간의 눈이나 피부의 세포를 칩 위에 배양하고 나서 새로 내놓을 화장품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대중의 반감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실제로 그 화장품을 사용할 인간의 눈, 피부에 직접 확인하니 안정성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폐·심장·췌장·눈·피부 같은 기관을 만들어낸 방식으로 소·돼지·닭의 근육(고기)이나 내장도 3차원으로 배양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배양육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제 이런 배양육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일만 가능하다면 축산 농가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2030년 육류 소비의 3분의 1이 배양육?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가 미국 기업 잇 저스트Eat Just가 생산한 배양육 닭고기의 시판을 승인했다. 먹을거리 대부분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배양육의 비중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30% 정도로 높이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네덜란드, 미국, 이스라엘 등의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 미국도 2023년 6월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 굿 미트Good Meat 두 회사의 배양육이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시판도 승인했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 같은 국내 식품 기업도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서 배양육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소 8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배양육으로 '유니콘 기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이 시판하는 배양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근육 세포를 고기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성분, 성장인자, 호르몬 등의 배합물이 필요하다. 현재 이 배합물의 원료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흔히 FBSFetal Bovine Serum로 약칭하는, 즉 소의 태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뽑아낸 혈청이다.

140g의 배양육을 생산하는 데 약 50L의 FBS를 사용한다. FBS 1L의 가격은 최대 1,000달러(약 130만 원)로, 생산비의 80%가량을 차지하는 FBS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배양육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시판 중인 배양육 닭고기를 놓고서도 현지 소비자가 가장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높은 가격이다.

현재 여러 배양육 기업이 FBS 없이 배양육을 고기 꼴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궁리 중이다. 배양육 산업계는 2030년이 되면 배양육과 축산 농가에서 생산한 고기의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되면 고작 6년 후인 2030년 전체 육류 소비의 3분의 1을 배양육이 차지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배양육의 안전성이나 소비자의 수용성은 어떨까? 안전성은 애초 고민거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시판 중인 닭고기 배양육이 오물·세균·기생충·살충제에 노출된 채 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되는 닭고기보다 안전성 면에서는 오히려 낫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양육을 먹어본 소비자는 식감(맛)에서도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1만 년 가까이 직접 키운 소·돼지·닭의 고기를 먹었던 인류가 실험실, 나아가 공장에서 배양된 고기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배양육의 이름을 놓고서 '클린 미트Clean meat'와 '합성고기Synthetic meat'가 경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203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서민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배양육을 먹고, 소수의 부유한 사람은 청정 농장에서 공들여 키운 소·돼지·닭을 도축한 자연산 고기를 먹는 '육식의 계급화'가 진행될 수 있다. 마치 지금 유기농 먹을거리가 다소 비싼 것처럼 말이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소·돼지·닭을 잔인하게 살상하고 그렇게 얻은 고기를 먹는 일 자체를 혐오스럽게 보는 문화가 정착할 수도 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고기를 먹는 전통 육식 문화가 인구 다수로부터 혐오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다. 앞으로 배양육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자병법과 전승 전략

‘노(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

현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 변화를 빨리 읽어내고 효율적인 전략을 짜는 유연함이야말로 <손자병법>이 전하는 핵심 전략이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동양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인문의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九變

“조정을 속이고 임금의 명령을 무시한 죄, 적을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배신한 죄,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기만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왕조실록> 1597년 조에 실려 있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의 사형을 명하며 한 말이다. 왜군의 부산 침공을 막고 격퇴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이순신 장군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거부했다. 거짓된 정보를 흘려 조선 수군을 유인하려는 왜군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었다. 인사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따를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을까?

<손자병법> 8번째 <구변九變> 편에서는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한다.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君命有所不受, 군명유소불수.’ 전쟁에 나선 장군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 후방 군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은 <손자병법> 여러 편에 나타난다. ‘전쟁의 상황에 따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군주가 싸우라 명령해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 ‘공격을 명령함에 명예를 구하지 마라進不求名, 진불구명, 후퇴를 명령함에 죄를 피하려 하지 마라退不避罪, 퇴불피죄, 공격과 후퇴의 결정은 오직 백성과 병사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唯人是保, 유인시보.’ 인사권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현

君命有所不受

대 조직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엄격한 명령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대 조직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직의 생존이다. 현장 상황을 근거로 조직의 생존에 위험이 되는 후방의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변> 편은 다양한九, 구 현장 상황의 변화變, 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은 불확실한 현장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고의 전환과 전략의 수정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변화를 빨리 읽어내고 효율적인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조직의 책임자는 더욱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無窮, 무궁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應形, 응형.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철학이다.

세상에 완전히 맞거나 틀린 결정은 없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군이 해서는 안 될 5가지가 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途有所不由, 도유소불유. 아무리 만만한 상대라도 공격해서는 안 될 군대가 있다軍有所不擊, 군유소불격. 아무리 갖고 싶은 성이라도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다城有所不攻, 성유소불공. 아무리 차지하고 싶은 땅이라도 빼앗아서는 안 될 땅이 있다地有所不爭, 지유소부쟁. 지엄한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아서는 안 될 명령이 있다君命有所不受, 군명유소불수.' 빠른 길에는 적의 매복이 기다리고 있고, 만만한 군대는 나를 속이기 위함이다. 성을 무리하게 공격하면 전력의 큰 손실을 주고, 땅을 다투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현장 상황을 모르는 부당한 군주의 명령을 들으면 참패를 당할 수 있다. 매물로 나온 기업을 합병해 조직을 키우려다가 결국 본 기업이 부도 위기에 빠지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큰 손해를 입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요즘에도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회사의 임원이 자리에 연연해 인사권자의 잘못된 결정에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세상에는 완전히 맞거나 틀린 결정은 없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를 늘 주시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노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 생존의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신하를 '불소지신不召之臣'이라고 한다. 아무리 지엄한 왕이라도 함부로 오라 가라 부를 수 없는不召, 불소 신하臣가 있어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군은 조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장군의 잘못된 결정은 그만큼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구변> 편에서는 조직을 위기에 빠트리는 장군의 유형을 말하고 있다. '반드시 죽기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조직을 이끄는 장군은 병사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必死可殺也, 필사가살야. 반드시 살기만을 생각하여 살 궁리만 하는 장군은 모두 포로로 만들 것이다必生可虜也, 필생가로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빨리 재촉하는 장군은 조직의 수모를 겪게 할 것이다忿速可侮也, 분속가모야. 혼자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 조직을 이끄는 장군은 조직의 치욕을 겪게 할 것이다廉潔可辱也, 염결가욕야. 부하를 끼고 돌아 전체 조직의 생존을 생각하지 못하는 장군은 병사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이다愛民可煩也, 애민가번야.' 장군은 죽자 살자 덤비는 무모한 사람도 아니고, 분노와 감정에 치우쳐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해 조직의 생존보다 자신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인사권자의 명령이라도 부당하면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리더를 가진 조직은 승리하는 조직이며 축복받은 조직이다.

용병을 잘하는 장군은 구변九變, 다양한 변화이 조직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다通於九變之利, 통어구변지리.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라無恃其不來, 무시기불래, 어떤 적이 공격해도 상대할 수 있는 나를 믿어라恃吾有以待, 시오유이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조직은 어떤 상대가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내가 되는 것이다. 강한 조직을 만드는 근간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 조직을 위기에 빠트리거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명령에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조직은 영원히 생존한다.

중소기업이 알아둬야 할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7월 25일, 정부는 2025년 이후에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중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을 '혜택'과 '불이익'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현직 세무사로 20년 넘게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한 각종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80여 권의 저서가 있다.

조세 혜택 관련 개정안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와 고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지원을 다양하게 받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은 어떤 식으로 이를 지원할 것인지 알아본다.

첫째, 투자와 고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 덤프트럭 등)에 투자하는 경우 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공제율 3%를 2025년 이후 투자분부터 10%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단, 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참조).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변경

중소기업이 2025년 이후에 고용을 증가시키면 아래와 같이 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계속고용	청년, 60세, 경력단절자 등	중소기업: 2,200(수도권)~2,400만 원(지방)	· 계속고용인원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 · 고용유지의무 없음.
	위 외 계속 고용	중소기업: 1,300(수도권)~1,500만 원(지방)	
탄력고용	계속고용 외 (단시간 근로자 등)	· 임금증가율 3~20% 미만: 증가분의 20%(중견 10%) 등 · 임금증가율 20% 이상: 증가분의 40%(중견 20%) 등	대기업은 정률공제 제외

이 개정안은 현행의 제도가 너무 복잡함에 따른 개선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의 제도는 고용증가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 이 기간 내 고용감소가 발생하면 세제지원이 중단되는 한편 기 지원분에 대해 추징하게 되며 그 적용법이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은 2024년 말 대비 청년 정규직 등을 증원하면 1인당 최대 2,400만 원을 적용하며, 2026년 말까지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추가로 2,400만 원(총 4,800만 원)을 공제한다. 그런데 2025년에 공제받은 후 2026년 중에 총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2,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으며, 2025년에 받은 공제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개정 세법을 통해 확인할 것).

둘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 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졸업)되지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2025년 시행일 이후에는 이 유예기간을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유예기간을 연장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상속·증여세 세율 인화 등 감세조치가 도입된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세율을 10~40%로 인하해 적용한다. 한편 상속공제 중 자녀 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인데, 이를 10배 인상해 5억 원을 공제한다. 이 두 가지 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불이익 관련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세 조치도 포함됐는데,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동산임대업을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임대업의 접대비 한도가 연간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되며,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율이 축소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9~24%다. 그런데 2025년 이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실신고를 적용받고 있는 임대업 법인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정안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
2억~200억 원 이하: 19%	
200억~3,000억 원 이하: 21%	좌동
3,000억 원 초과: 24%	좌동

참고로 앞의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등이 인하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5년간 50~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예 : 용인시, 남양주시 등)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25%(청년 등 50%)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주로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기업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율은 1.3%가 적용되는데, 매출액 5억 원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0.65%로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가위에 알아보는
명절 관련 노무이슈 Q&A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을 맞아 명절 관련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장내석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노무사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업들의
인사평가나 보상설계와
같은 HR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추석도 법정공휴일인가?

원래 설, 추석,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됐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모두 법정공휴일로 의무화됐으며 만약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추석에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해야 하나?

백화점·마트·음식점 등은 대목이라 쉬지 않고, 평소 교대근무를 하는 병원 같은 곳에서는 누군가 쉬게 되면 근무공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명절에도 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남들 다 쉬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만큼 돈이나 시간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가도 동일하다. 만약 추석에 8시간 근무해서 다음 주에 대체휴가를 부여한다면 1.5배인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추석에 사용하라고 명절보너스 또는 추석차례비 등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나?

'매년 추석보너스를 30만 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지급하기로 돼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매년 추석 전날에 기본급 20%를 지급해 왔다면 이 또한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장님이 회사 여윳돈이 있을 때만 지급하거나 또는 올해는 추석 차례비를 지급했지만 작년까지는 추석 선물을 과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지급 여부가 불확실했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Q. 추석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소고기 주고 누군가에게는 김 세트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

그렇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더 신중해야 한다. 법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광고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주면서 정규직은 고가의 상품을 직접 자택으로 배송해주는 반면 비정규직은 투박한 쇼핑백에 식·음료 세트를 넣어 지급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추석 선물은 비정규직이라고 차이를 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차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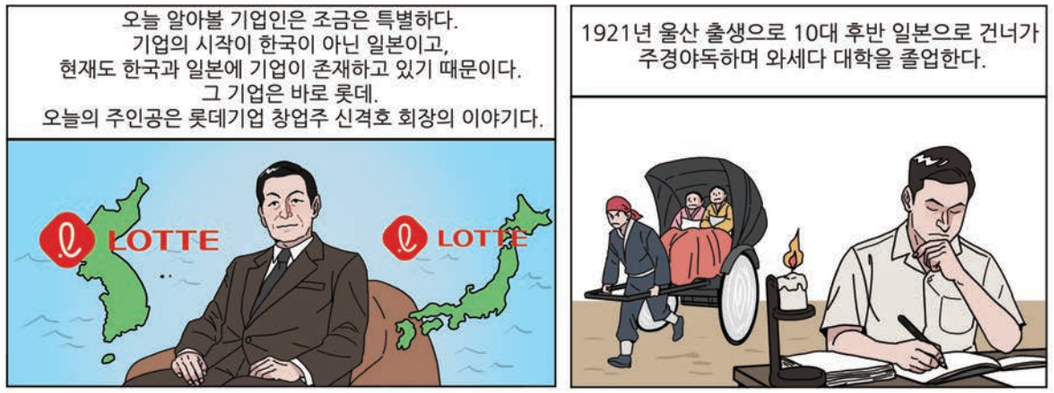
Q. 추석에 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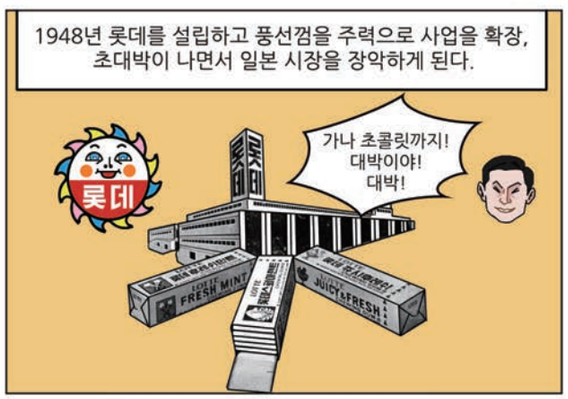
추석연휴 근무를 특정인에게 몰아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트 직원 A씨는 평소 점장에게 바른말을 잘해서 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점장이 추석연휴 근무표를 짜면서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6일 중에 무려 5일 동안 A씨를 근무에 배정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 이틀씩 쉬었다. 그렇다면 A씨는 무려 2배 넘게 근무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추석연휴 동안 중요한 일도 아닌데 계속 문자나 SNS로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사적인 톡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된다. 연휴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팀장이 자기는 심심하다고 "뭐해? 나랑 낚시나 갈까?"라고 연락하고, 그다음 날에도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니 할 일 없지? 나와. 술이나 먹게"라는 식으로 연락하면 팀원에게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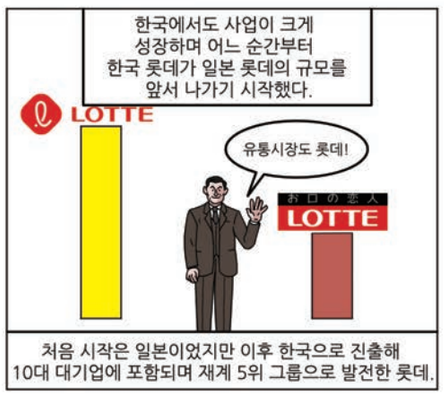
Q.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이면 "아직 취직 안 됐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이 문제되기도 하나?

우리나라 3대 "안 해"시리즈가 있다. "왜 취업 안 해?", "왜 결혼 안 해", "왜 임신 안 해?", 참 변하지 않는 친척들의 질문 리스트다. 그런데 만약 친척이 대기업 인사부서 임원이라면? "너 아직도 취업준비 중이니? 그럼 우리 회사에 입사서류 제출해봐 내가 서류까지는 통과시켜 줄게. 면접질문지도 보내주고" 같은 제안을 한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다. 물론 채용도 취소가 된다. 그러니 친척 중에 취업이 안 돼 고민 중인 가족이 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뽑아줄게"라는 식의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롯데 신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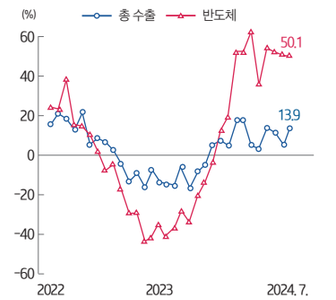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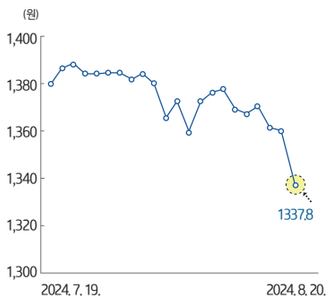
7월 수출 총액은 57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국가별로는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5개월,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8월 1~10일 기간 수출은 24.0% 증가했다.

부문별 경기 개선 속도 차 뚜렷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26.9%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출하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으나, 내수 출하는 6.4% 감소하면서 수출-내수 간 차이도 지속되고 있다.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8월 환율은 1,380원에서 1,337원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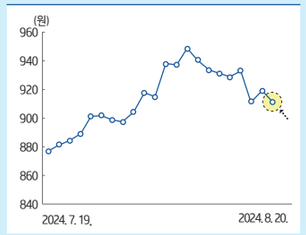
(2024년8월1일1,380.1원→8월9일1,377.7원→8월20일1,337.8원)
8월 달러/원 환율은 美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5개월 만에 1,330원대로 하락했다. 7월 31일 日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해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나타냈고, 미국 고용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달러/원 환율은 1,360원까지 급락했다. 이어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도 다시 상승했으나, 이후 미국 물가와 소비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 1,337원까지 하락했다.

2024년 3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60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4년 3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360원으로 조사됐다. '1,37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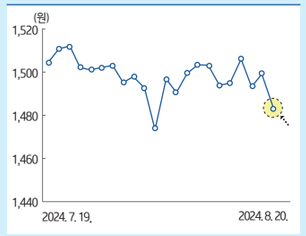
*환율 전망 응답 시기 : 2024년 7월 29일~8월 15일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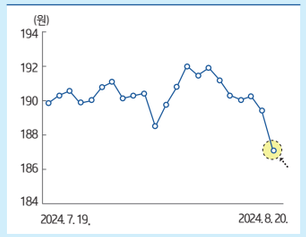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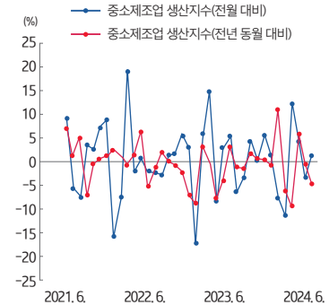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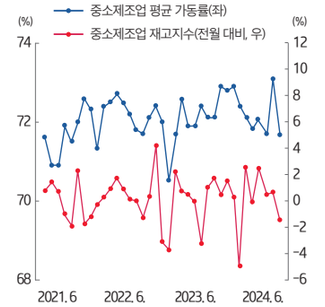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6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8.1%), 화학제품(1.2%), 기계장비(1.0%) 등에서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의약품(-11.7%), 석유정제(-4.1%), 식료품(-2.9%)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26.9%), 의약품(21.1%), 전자부품(6.9%)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18.7%), 1차금속(-9.8%), 자동차(-4.1%)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6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1.4%포인트 감소한 71.7%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0.7%포인트 감소한 67.7%, 중기업(50인~299인)은 2.1%포인트 감소한 76.2%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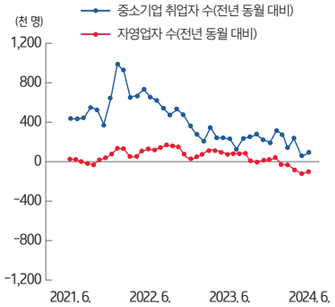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6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화학제품(1.4%), 석유정제(1.8%), 1차금속(0.4%)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4.6%), 전자부품(-12.9%), 전기장비(-3.9%)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6월 중소기업*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1,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2,000명이 감소한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9만 3,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약 2,579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4년 6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이 감소해 약 570만 3,000명을 기록했다.

IBK SUPPORT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인사조직편 실시 안내

주제별 컨설팅 대상 및 내용

① 채용 경쟁력 진단 및 채용 전략

요즘 직원 채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대상: 인력규모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기업, 지원자 및 적임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내용: 채용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채용성공률 향상을 위한 방법·절차 등 개선 및 제반사항 구축 지원

② 조직문화 진단 및 공감대 향상 방안

사장님과 직원…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

대상: 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성과 저하 등 사유로 위기극복이 필요한 기업, 조직응집력을 강화하고 싶은 기업 등

내용: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조직문화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 자유롭게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

③ 동기부여 진단 및 개선 방안

MZ세대, 우리 회사에 다녀야 하는 이유!

대상: MZ세대의 입·퇴사가 잦은 기업, 업무몰입도 제고가 필요한 기업, 금전 이외의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기업 등

내용: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동기부여 수준 및 요인을 분석하여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기 위한 활동과 제도를 탐색

수행 방법 컨설턴트가 기업에 상주하며 컨설팅 수행(1주 이내) **신청 방법** 거래영업점을 통한 신청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771호(2024.08.19) 유효기간(2025.08.15)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0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O2O	ONE-STOP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